

연예

12

2020년 1월 15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연예뉴스 HOT 3

양준일 "정규 1집 재발매 하지 않겠다"

가수 양준일의 동의 없이 이뤄진 정규 1집 재발매와 관련해 유통사 측이 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다. 양준일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17일 새로 나온다는 저의 1집은 제가 동의한 적 없고 오늘 아침에 알게 된 사실"이라면서 "오해를 풀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제가 여러분께 약속했던 앨범이 아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글을 올렸다.

송선미, 청부살해 A씨 상대 항소심 승소

연기자 송선미가 남편을 청부 살해한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는 송선미와 그의 딸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총 13억1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 내용과 경과에 비춰보면 2심 재판에서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더해보더라도 1심 판정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사촌지간인 송선미의 남편 고 씨와 갈등을 벌이다 2017년 8월 청부 살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승기, 재활 환자들 위해 1억원 기부

가수 겸 연기자 이승기가 재활 환자들을 위해 써달라며 1억 원을 기부했다. 14일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승기는 척수손상으로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위해 써달라며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기부했다. 이승기와 함께 그의 팬 연합인 '아이렌'도 1000만 원을 쾌척했다.



에듀윌

지역사회 꿈 실현 위해 '배움의 기회' 제공

새해를 맞아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에 기지개를 켜는 가운데,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창립 이래 꾸준히 이어온 나눔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에듀윌은 교육기업으로서 소명을 가지고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배움의 기회를 누리지 못한 지역 이웃을 위해 적극적인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0년 1기 장학생 선발을 시작으로 11년째 운영하고 있는 '에듀윌 장학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인재를 발굴 및 지원한다. 매년 중학생 10명을 선정해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회사와 임직원이 1:1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기부금을 조성하는 '나눔펀드' 역시 소외된 이웃들의 교육 활동에 활용되고 있다. 2015년부터 청소년, 장애인 등의 교육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나눔펀드를 기부해왔다.

법무부 산하 전국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수강권 및 교재도 지원하고 있다. 에듀윌의 검정

장외행사 진행자 박경림-박슬기-박지선 '3박 체제'



박경림



박슬기



박지선

방송가 밖에선 '내가 MC퀸'

박경림, 영화 관련 행사 10년 베테랑 리포터 13년 박슬기 제작발표회 No.1 덕후 출신 박지선 팬미팅계의 강자

'3박(林) 체제.'

방송인 박경림, 박슬기와 박지선이 연예계의 다양한 행사 진행자로써 '강자'의 자리를 꿰차고 있다. 영화 제작발표회부터 드라마 제작발표회, 팬미팅 등을 분점하다시피하면서다. 각각 친숙함과 순발력, 공감 능력을 무기 삼아 대중은 물론 관계자들의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

●박경림...허정우도 인정한 '영화 요정'

10년 가까이 영화 관련 행사를 진행해 왔다. 최근에만 영화 '클로젯' '정직한 후

보' '남산의 부장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등 제작보고회에 나섰다. '명량' '극한직업' '신과 함께:죄와 벌' '국제시장' 등 '1000만 클럽' 영화도 그가 소개했다.

주연배우와 감독의 전작 정보까지 세세하게 메모해 무대에 오를 만큼 철저히 준비한다. 장르에 따른 의상 스타일은 기본이다. 언론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대규모 제작비를 들여 만든 영화를 공식적으로 처음 소개하는 자리"라는 책임감 때문이다.

덕분에 송강호, 김혜수, 하정우 등 스타들도 "명절에 만난 가족"처럼 그를 반긴다. 유이인은 "나의 불안함을 잠재워주는 존재"라며 의지한다고 밝혔다.

●박슬기...방송가 행사의 '넘버 원'

따라올 자가 없다. 방송 중인 tvN '사랑의 불시착' '블랙독'을 비롯한 각종 드라마 제작발표회의 마이크를 잡았다. KBS 클러FM '박명수의 라디오쇼' 등 라디오 프로그램의 고정 게스트이기도 하다.

지난달 MBC '놀면 뭐하니?' 유재석의 '깜짝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유재석은 "(박)슬기가 참 잘한다. 덕분에 잘 마쳤다"며 호평했다. 김국진, 박명수, 박경림 등도 "주목하는 후배 방송인"으로 꼽는다.

2006년 합류해 13년 동안 리포터로 활약한 MBC '섹션TV 연예통신'이 성장 무대다. 각종 돌발상황을 극복하면서 키운 순발력은 다양한 현장에서 힘을 발휘하게 했다. 출신 2주 전인 지난 달 말까지 방송가를 누비며 "건강하게 출산하고 빠른 시일 안에 복귀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박지선... '팬심'은 나의 힘!

팬미팅 진행자 섭의 '1순위'다. 그룹 뉴이스트, 배진영, 정세운 등 아이돌 가수뿐 아니라 이희진, 임시완, 서강준 등 연기자들의 팬미팅도 진행했다. 가요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팬미팅 계획의 첫 발은 박지선 일정 확인에서부터"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인기가 좋다.

"팬심"을 잘 안다"는 평가 덕분이다. 그룹 H.O.T.의 팬클럽 회원 출신으로 팬들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파악한다. 덕분에 팬들 사이에서 "다음에도 진행자로 섭외해 달라"는 요청이 날아온다.

스타들의 호평도 줄을 잇는다. 연기자 박정민은 "팬미팅을 재미있고 원활하게 진행하는, 고마운 누나"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엑소 첸 탈퇴하라고? 결혼이 될 죄!

혼전임신에 팬들 거부감 상상이상

깜짝 결혼 발표를 한 그룹 엑소의 멤버 첸(28)이 팬들의 엇갈리는 반응에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13일 첸이 3년 넘게 교제해온 연인과 결혼한다며 2세 소식까지 동시에 밝히면서 팬덤이 균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첸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자는 팬들은 "축하한다"는 인사를 건네고 있는 반면, 엑소의 공식 팬클럽인 엑소엘을 비롯해 엑소 갤러리 등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솔로가수도 아니고 아이돌 그룹의 멤버로서 황당한 선택"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엑소는 방탄소년단과 함께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며 국내 최정상에 오른 그룹이다. 팬덤도 '아미'(방탄소년단 팬클럽) 못지않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엑소의 활동 원동력으로 꼽힌다. 이런 점에서 첸의 결혼과 여자친구의 혼전 임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팬들의 분위기가 격앙되어 가고 있다. 실제로 앞서 첸이 팬들에게 "저도 많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보내주시 사



첸

랑에 보답하겠다"고 했지만 거부감을 드러내는 팬들이 적지 않다.

급기야 일부는 "팬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일 뿐 아니라 그룹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느껴지지 않은 선택이다"며 "앞으로 첸의 모든 활동에 대해 보이콧하겠다"고 그룹 탈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첸이 지난해 두 차례나 솔로앨범을 발표하며 팬들과 소통했고, 지난해 말 그룹의 일원으로 앙코르 콘서트까지 펼치면서 "배신감이 든다"며 '탈퇴'(팬 활동을 그만 둠)하는 팬들도 나타나고 있다.

사실 아이돌 그룹은 강력한 팬덤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만큼 이들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취약점이 있다. 하지만 아이돌 스타의 연애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시대적 변화에 따라 멤버들의 연애사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비교적 관대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 점에서 첸의 경우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 향후 추이에 시선을 모은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홍행 퀸' 백예린, 솔로파워 한번 더!

tvN '사랑의 불시착' OST 음원 1위

요즘 보기 드문 '홍행 퀸'이다. 가수 백예린(22)이 독보적인 솔로 파워를 과시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지난해 말 데뷔 7년 만에 내놓은 첫 번째 솔로앨범 성공에 이어 드라마 OST 음원 1위, 여기에 첫 단독 콘서트까지 매진시키며 2020년을 힘차게 출발했다.

활약은 각종 음원차트에서 나타난다. 케이블채널 tvN 토일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OST곡 '다시 난, 여기'를 통해 '신홍 음원 강자'로 떠올랐다. 청아한 목소리와 드라마의 인기로 힘입어 '다시 난, 여기'는 각종 음원차트를 석권했다. 백예린의 드라마 OST 참여는 2017년 드라마 '시카고 타자기' 이후 3년 만이다. 팬들은 오랜만의 OST 활동에 반색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12월 첫 번째 정규앨범으로 주요 음원차트 정상을 휩쓴 지 한 달만의 성과여서 더욱 시선이 쏠린다. 당시 백예린은 영어 가사(타이틀곡 '스퀘어')로 '첫 1위'를 차지하는 이색 기록을 남겼다. 백예린의 대박 행진은 불과 두 달도 채



백예린

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12년간 몸담았던 JYP엔터테인먼트에서 나와 1인 기획사 형태로 차린 독립레이블을 통해 독자 활동을 펼치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백예린은 다음달 8일과 9일 서울 광장동 예스24라이브홀에서 여는 첫 번째 단독 콘서트 '틴 온 댓 블루 바이날'도 2회 전 석(3000석) 매진시켰다.

2007년 SBS '스타킹'으로 얼굴을 알린 백예린은 SBS '케이팝 스타'(2011년)의 우승자인 동갑내기 박지민과 이듬해 듀오 피프티엔드(15&)를 결성하고 정식 데뷔했다. 이정연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교육·퍼즐

에듀윌

'에듀윌 장학재단' 11년째 운영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토쿠문제

2	3					7	4
6			1		9		3
	5		4	9	3		
		7				4	
	4	2				6	3
			5			7	
			9	8	5		1
5		3		4			2
1	7					4	9

			1	3	4		2	
9		4				1		
	7			6			4	
6			4		8			2
3	7					4		5
4			3		5			6
	8			2			5	
		3				2		9
6		5	4	7				

■ 스토쿠정답

6	7	9	2	8	9	8	7	1
2	9	8	1	7	4	3	6	5
7	1	8	5	8	6	9	2	4
8	2	7	4	9	8	5	1	6
5	8	9	6	7	1	2	4	8
1	6	4	7	8	2	9	7	3
9	8	2	8	6	3	4	1	5
3	5	6	9	8	7	1	2	4
4	7	1	1	9	5	8	6	3
1	8	7	4	5	6	9	2	3
6	7	2	1	8	9	3	4	5
4	5	9	2	6	1	8	7	3
6	8	7	1	5	8	9	2	4
9	8	4	9	6	2	7	1	3
2	1	8	7	4	5	6	9	3
3	4	5	6	9	8	7	1	2
8	9	1	2	5	7	4	8	6
7	2	4	6	3	1	9	5	8